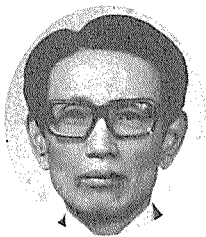


성병의 진단과 치료 및 예방



한 규 호

옛날에는 성병에 대한特效약이 개발되지 않았던 탓으로 성병을 치료하는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뿐아니라 환자가 겪는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이 컸기 때문에 한번 성병을 경험했던 자는 성병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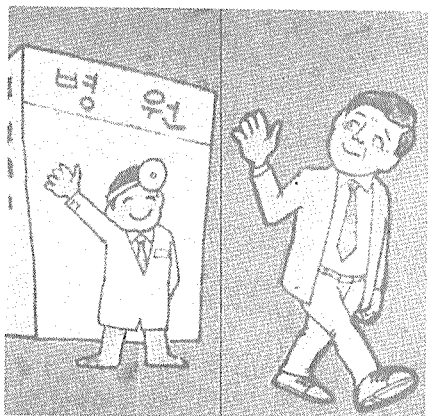
그러나 설과제와 항생제의 발견은 성병 치료에 혁명적인 계기를 만들었으며 이제 성병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주 쉽게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때문에 근래에 이르러 성병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시풍조(輕視風潮)가 사회에 만연한 나머지 “성병에는 마이싱 두알,,이란 용어마저 생겨나게 되어 뜻있는 자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의학(醫藥)의 발달로 치료가 쉬워진 성병은 점차 감소되어야 했으나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추세이며 또한 실정이다. 이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의학적인 측면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병에 걸리면 자각증상이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환자임을 알게 되나, 매독의 경우 초기증상이 나타나기는 하나 통증이 없으므로 자각증세를 느끼지 못한 채 모르고 지내기도 하고 여자들은 신체 구조상 발견이 늦어지기도 한다. 임질에 있어서는 특히 여자의 경우 감염이 되어도 약 80%가 본인은 아무런 증상없이 지내면서도 남에게는 병을 옮겨주게 되어 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약품을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가 치료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치료를 시작하면 곧 증상이 없어지므로 치유된 것으로 착각하여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많으나 실은 비록 증세는 없어졌으나 병은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태는 남에게 병을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재발이 자주 되어 이때에는 강한 치료약을 써야 하는 등 진단과 치료를 더욱 어렵게 하며, 평균도 사람과 같은 생물이기에 어떻게 해서든 살아 남으려고 하므로 이러한 불완전한 투약은 약에 대한 병원균의 저항력, 즉 내성(耐性)을 길러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환자가 처음 판단을 잘못하여 자가 치



◀ 모든 성병은 현대의학으로 완치될 수 있습니다. 방황하지 말고 비밀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료를 함으로서 불완전한 투약으로 초기 치료에 실패하여 병이 만성화되어, 치료를 하는데도 완치가 안돼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며 찾아다닐 뿐 아니라 거의 노이로제가 되어있는 예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다.

임질은 급성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치유될 수 있으나, 불완전한 치료 때문에 만성기로 이행하면 만성 요도염이나 만성 전립선염이 된다. 이때는 경과가 오래 가고 약물 요법만으로는 치유되기 어려우며 이때는 이런 약물 요법과 결합하여 요도확장(尿道擴張), 요도세척(尿道洗滌), 전립선 맛사지, 나아가서는 방광경적(膀胱鏡的)수술 등 비뇨기과적인 치료를 하여야만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외에도 성병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부족과 특히 성병이 갖는 수치심이라는 가, 이를 감추려는 심리적인 면 등도 성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에 지장을 주기도 한다. 모든 병이 그러하듯이 병이란 걸리기는 쉬워도 고치기는 어려운 법이며 더구나 성병은 만성으로 진행되는

전염병이므로 옮겨질 때는 간단히 되지만 그 경과나 치료는 오랜 기간을 요하게 된다.

치료에 앞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하며 진단이나 치료는 마땅히 이 분야의 전문가인 의사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요즘에는 진단 방법이나 치료약들도 많이 발달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 하에 적절한 치료를 철저히 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며, 만일 부부간에 어느 한쪽에라도 성병이 있으면 서로 털어놓고 상의하여 반드시 부부가 함께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한쪽만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성병을 서로 주고 받는 결과가 되어 성병 치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비록 성병은 무서운 병이라고는 하나, 조기에 발견하여, 빨리 적절한 치료를, 완쾌되었다는 치유 판정이 있을 때까지 꾸준히 받게 되면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며, 무서운 것은 성병 자체보다는 이병에 대해 무관심 하거나 혹은 이병을 방치해 두는 태도가 더욱 무서운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IX. 성병의 예방

성병은 전염병의 일종이지만 다른 전염병과는 달리 그 감염원이 확실하다는



◀ 성병진료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의 의료보호 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누구나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점이 특이하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염원을 색출하여 철저히 이를 근절시키는 동시에, 이미 성병에 걸린 환자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치료를 한다면 이론상으로는 성병의 퇴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식욕과 더불어 중족보존이라고 하는 강한 생물학적 본능이 있을 뿐 아니라 사회의 복잡한 인간 관계는 남녀 양 성간의 문제가 기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오랜 역사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병을 근절시키지 못하는 원인이 여기에도 있다 하겠다. 즉 성병은 주로 성 행위에 의해서 전염되므로 성이 있는 한 성 행위는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성병 감염의 위험성은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병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주변에 있으며 또한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이다. 이제 성병에 관한 문제는 의학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적인 문제로서 파악하여 문제 해결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성병의 예방대책은 정책적 방법과 개인적 방법의 두가지로 구분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정책적 방법으로는, 교육에 의해서 성도덕심을 향상시키고 성에 대한 올바른 자아 형성을 어릴 때부터 주시시켜야 함은 물론, 일반에게 대해서는 성병의 지식을 보급하고 그 병리 치료법 및 예방법을 알려 주어 성병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년기부터 적당한 성교육을 실시하여 성에 관한 지식을 심어주어 장래에 대비하는 것은 긴요한 문제로서, 우리나라에서도 하루 빨리 성 교육이 실시되기를 고대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미 발생한 성병환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여 그이상 전파(傳播)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편으로는 경제 및 사회의 발달에 따라 과거보다는 성병을 전파하는 감염원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졌다고는 하나, 이들 성병 감염의 위험성이 극히 우려되는 감염원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등록관리를 실시하는등 내실있는 성병관리 및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성병에 대한 홍보교육, 환자의 추적조사, 감염원에 대한 관리 등 그나라의 실정에 맞추어 나름대로의 성병 예방을 위한 대책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성병이 갖는 특수성 때문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병의 퇴치에 있어서는, 일거(一擧)에 이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비록 조금씩이나마 점차적으로 감소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각종 방법을 종합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개인적인 예방책으로는 우선 보균자와의 접촉을 하지 않도록 부부 이외의 성행위는 될 수록 갖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라 하겠으며, 그렇지 못할때의 일시적인 예방책으로는 가장 편리한 것으로 콘돔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미리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는 번잡성과 이물감이 있다는 단점을 있으나, 피임도 겸할수 있다는 잇점이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수은연고"나 "설파연고"등 살균연고를 접촉한 전후에 바르거나, "과망간산카리"같은 살균제용액으로 접촉전후에 국소를 세척하는 방법도 다소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접촉직전과 직후에 항생물질 특히 페니실린을 복용하면 매독이나 임질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 그외에 음주후의 성행위는 감염 발생율을 높이기 때문에 될수록 피하는 것이 좋으며, 접촉 후에 깨끗한 물과 비눗물로 국소를 충분히 씻는 것도 성병예방을 위해 도움이 되며 접촉전후에 물이나 음료수를 많이 마심으로써 배뇨를 많이 하는 것은 요도에 침입한 균을 씻어내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방책을 썼다고 해서 반드시 성병이 예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인식해야 한다. 특히 약제를 사용하는 예방법에 있어서 야기되는 큰 결함은 성병에 전염 되었는데도 예방법 때문에 그 증세가 가리우거나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완치에 큰 장애가 된다는 사실이다.

불행히도 일단 감염이 되었을 때는 완치가 될 때까지 접촉을 피하여 더이상 타인에게 성병을 옮겨주는 일이 없도록 하는 마음가짐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끝으로 강조해 두고 싶은 것은 혈액검사에 관한 것이다. 해외 취업전 신체검사 또는 일반 직장에서의 정기적 신체검사 등에서 혈액검사에 의해 매독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되어 당황하는 사례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다. 매독의 감염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임상증상에 혈액검사(매독혈청반응검사)가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1906년에 독일의 왓셀만(Wassermann)에 의해 발명된 이래, 요즘에는 그 정확성을 높이는 새로운 검사 방법들이 개발되어 매독의 진단과 치료에 활용되고 있다. 매독은 감염되고서도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지내는 수가 많기 때문에, 어느정도 병이 경과한 후에 발견될 때에는 선천성으로 온 것인지, 혹은 후천적인 것인지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아 의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수도 있다.

따라서 성병감염의 의심이 있는 성접촉후에는 반드시 혈액 검사를 받도록 하여 조기발견, 조기치료 하는 것이 성병 예방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 하겠다. 혈액 검사는 특히 여성이 임신했을 때는 물론이요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결혼하기에 앞서 남녀 상호간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서로의 건강을 확인하는 것도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끝>

<필자=인구보건연구원·의박>